



1997년 외환위기 소재 영화 ... 한국은행 팀장 역할 맡아
조우진·뱅상 카셀과 연기 ... “젊은 관객들 많이 봐주시길”

“저는 시나리오를 주로 밤에 봐요. 처음에는 반쯤 누워서 보다가 점점 똑바로 앉아서 보게 됐고, 나중에는 화가 나서 검색하면서 봤어요. 피가 거꾸로 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현역 여배우 중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카리스마의 주인공 김혜수가 1997년 외환 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그녀는 국가 부도 사태를 가장 먼저 예측한 한국은행 통화정책 팀장 ‘한시현’ 역을 맡아 위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상을 그렸다.

“저는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세대잖아요. 친구와 함께 시사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보더라고요. 그때 월급도 삭감되고 회사에서 어려웠나 봐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당시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안 친인척 중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김혜수 역시 완성분을 본 것은 전날 시사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다 아는 이야기고 본인이 연기한 작품인데도 눈물이 날

다고.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내가 알지 못한 것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준호 선배가 연기한 ‘갑수’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로 와 닿았죠.”

김혜수가 맡은 ‘한시현’은 즉시 위기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반면 그와 대적점에 선 ‘재정국 차관’은 위기를 비밀로 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국 차관’과 한시현의 대립은 영화의 골간을 이룬다. 김혜수는 상대역을 맡은 조우진에 대해 ‘천재’라며 극찬했다.

“저는 연기 잘하는 분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게 있어요. 제 연기 인생에 그렇게 느낀 분이 많지 않은데 그중 한 분이 조우진 씨예요. 정말 천재적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노력까지 하잖아요.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 순간이 좋아요. 배우에게 그만큼 자극은 없거든요.”

그가 호흡을 맞춘 또 한 사람은 IMF 총재 역을 맡은 프랑스 배우 뱅상 카셀이다.

김혜수가 전부터 좋아한 배우라고.

“뱅상 카셀이 IMF 총재 역을 맡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오마이 갓’ 했어요. 워낙 좋아한 배우였거든요. 이분을 어떻게 캐스팅했냐고 물으니가 본인이 시나리오를 보고 흥미가 있어서 출연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많게는 다섯 번까지 연습했어요. 사실 그건 당연하죠. 말이란 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요. 실제 본 뱅상 카셀은 젠틀하고 나이스한 배우였어요. 저는 외모를 좋아해서 팬이 됐지만 연기는 더 끝내주더라고요.”

‘한시현’은 당당한 여성의 표상과도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김혜수는 남성 권력에 도전하는 여성 투사와 같은 생각으로 연기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혜수는 이 영화의 감점으로 단순한 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논의와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이 영화는 은근으로 IMF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죠. 저는 젊은 관객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혹은 알 수 없었던 1997년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를 본 분들이 이 영화를 매개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능, 너도나도 해외로...포맷 차별화없으면 시청자 외면

출연진 섭외 등에 편리
유사 프로그램 ‘우후죽순’

비단 여행 예능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다. 소재와 포맷이 무엇이든 해외에 나가서 찍는 예능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걸지만, 유사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차별화에는 실패하는 분위기가.

‘온에어’ 중인 예능만 살펴도 해외에서 찍은 작품은 10개를 훌쩍 넘는다.

SBS TV ‘정글의 법칙’, tvN ‘짱내투어’, KBS 2TV ‘배틀트립’, JTBC ‘몽쳐야 뜬다’처럼 장르가 아예 완전히 여행 예능으로 분류돼 해외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부쩍 해외 예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인문학 예능의 새 장을 연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 역시 이번 시즌3 초반 그리스 아테네와 이탈리아 피렌체와 토스카나 등지로 배경을 넓혔다.

물론 배경이 어디든 밤샘 수다에 지치지 않는 5명의 잡학박사라 듣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여전했지만, 지난 시즌과 큰 차별점은 찾기 어려웠다.

물론 그리스를 배경으로 서양철학사를 푼다는 맛은 있었지만, 국내 여

행을 떠나서 들려준 이야기들보다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굳이’ 해외로 갈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시청률 역시 시즌 17%대, 시즌2 6%대에서 시즌3 5%대로 다소 하락했다.

먹방(먹는 방송)과 쿡방(요리하는 방송) 역시 너도나도 해외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tvN ‘현지에서 먹힐까?’의 경우 콘셉트 자체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음식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번 시즌에서 이연복 셰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덕분에 흥행에 성공했다. 프로그램 기본과 차별점에 충실하면서 해외라는 볼거리를 얹은 사례다.

그러자 이번에는 배우 박중훈과 신세경을 내세운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가 안방극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음식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콘셉트인데, 포장마차라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제작진은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 방송되지 않은 시점이라 평하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시청자가 ‘박중훈, 신세경의 첫 고정 예능’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새로운 포맷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

KBS 2TV에서는 개그맨 정형돈, 배우 이채영, 작가 김풍이 와인 등을 고리

로한 ‘슬로우 미식 여행’을 주제로 프랑스로 떠났다. 제목부터 ‘파리로 가는 길’이다. 첫 방송 후 반응은 좋지 않다. 멤버 조합도, 포맷도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청률 역시 1%대에 머문다.

코미디TV 간판 예능 ‘맛있는 녀석들’ 역시 최근 20회 특집 배경으로 대만을 선택하는 등 음식 관련 예능의 해외 촬영은 끊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지오디를 내세운 JTBC ‘같이 걸을까’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tvN ‘신서유기’ 같은 게임 예능도 해외 촬영이 흔한 일이 됐다. ‘신서유기’의 경우에도 인기는 해외라는 배경에서 온 게 아니라 출연진의 남다른 유머 코드와 포맷 덕분에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방송가 관계자는 20일 “점점 해외로 여행 가는 인구가 늘면서 시청자 관심도 면에서 국내보다 해외를 소개하는 그림이 더 다채롭다는 제작진의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해외에 나가다 보니 ‘우리도 가자’는 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출연자들 입장에서 ‘여행도 가고 일도 하고 일석이조’라며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제작진이 섭외에 더 편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결국은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포맷이 가장 중요하다. 해외 촬영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박서원 오리콤 부사장-조수에 아나운서 내달 결혼

두산그룹 광고계열사 오리콤의 박서원 부사장과 JTBC 조수에 아나운서가 백년가약을 맺는다.

20일 제계에 따르면 박 부사장과 조 아나운서는 다음 달 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사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이다. 오리콤 부사장이면서 오리콤의 한 사업부문(BU)인 두산매거진의 대표이사, ㈜두산 전무 등을 맡고 있다.

조 아나운서는 2016년 JTBC에 입사한 뒤 아침 뉴스 ‘JTBC 아침&’ 앵커, ‘오늘, 그대야’, ‘전(錢) 국민 프로젝트 슈퍼리치’, ‘LPGA 탐구생활’ 등 예능



박서원 조수에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0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내 뒤에 테리우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공룡 메카드	00 모두 하우스(재)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2018 SBS 창사특집대기획 운인가 능력인가 공정한 경쟁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버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큐	0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스포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전북마늘밭과 무말랭이 무침)	17:15 엄마 까투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차차 기행 3부 푸젠, 차의세계화>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꼬마버스타요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7:00 올감한 소방차 레이	13:00 독도채널e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20:40 세계테마기행 <침표를 찾아서, 태극 북복 3부 행복을 드립니다 왔로드>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단풍에 취하다 3부 그대에게 물어들어>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불멸의 진시황 제2부>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2:45 국한직업
09:30 원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올감한 소방차 레이	
10:30 한국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21일(음 10월 14일 丁巳)

<p>36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48년생 감당할 수만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0년생 해묵은 일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단계이다. 72년생 면밀히 점검한 후에 진행하라. 84년생 심기일전 한다면 활기찬 미래를 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59</p>	<p>42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라. 54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 받은 셈이다. 66년생 동기를 부여하는 기분이 조성되리라. 78년생 가로 막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으니 우회하는 것이 용이하다. 90년생 하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7, 02</p>
<p>37년생 방심은 금물임을 알라. 49년생 내실을 기했을 때 자기 발전을 꾀한다. 61년생 남에게 말도 못할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리라. 73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는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85년생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5, 34</p>	<p>43년생 일찍일일 할라. 55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67년생 지금 보이는 것은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79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1년생 방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5, 22</p>
<p>38년생 숙명적으로 경쟁해야만 할 국량이다. 50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62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변하는 양태이다. 74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86년생 진솔함이 생산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행운의 숫자 : 99, 08</p>	<p>44년생 특별함이 없다면 대중소이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56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68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침착성도 절실히 요청 된다. 80년생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도 내면에는 부실함이 많다. 92년생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행운의 숫자 : 98, 46</p>
<p>39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51년생 한 눈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 63년생 활용 여부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75년생 애매할 것이다. 87년생 조처함에 있어서 운명의 기세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51</p>	<p>45년생 큰 코 다칠 수 있다. 57년생 관리가 중요하다. 69년생 기본적인 속성은 대중소이하다. 81년생 결가지는 차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1년생 방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5, 22</p>
<p>40년생 준비해 두어야만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52년생 단호한 결단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6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낭패를 보리라. 76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88년생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허하다. 행운의 숫자 : 11, 26</p>	<p>46년생 임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46년생 방심 하다가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58년생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 70년생 완성도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82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습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라. 행운의 숫자 : 70, 95</p>
<p>41년생 다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65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종국적인 결과는 같다. 77년생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9년생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5, 21</p>	<p>35년생 원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7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59년생 객관적 실상에 주목하여 한다. 71년생 객관화 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하므로 아무런 슬모가 없느니라. 83년생 꼭 밀려줘야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3, 14</p>